

박형준 / 2월 / 도약GS / 2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09152	25	13	24	19	81	1	2.44%	7	41
509117	24	17	22	16	79	2	4.88%	7	
513526	24	17	22	16	79	2	4.88%	7	
509387	22	18	20	13	73	4	9.76%	5	
509122	25	19	17	11	72	5	12.20%	4	
513476	19	18	24	11	72	5	12.20%	5	
513607	24	15	20	13	72	5	12.20%	6	
509127	22	17	19	13	71	8	19.51%	4	
509153	21	14	22	12	69	9	21.95%	4	
514023	24	16	19	10	69	9	21.95%	5	
509120	20	15	19	14	68	11	26.83%	5	
513456	19	16	19	12	66	12	29.27%	3	
513620	23	15	18	10	66	12	29.27%	5	
509107	23	16	12	13	64	14	34.15%	5	
513684	23	15	15	11	64	14	34.15%	3	
513843	17	16	20	11	64	14	34.15%	4	
513434	23	14	15	12	64	14	34.15%	6	
513448	21	16	17	8	62	18	43.90%	4	
513617	19	16	18	9	62	18	43.90%	4	
509377	19	13	16	13	61	20	48.78%	4	
513748	21	13	18	9	61	20	48.78%	4	
513481	23	12	14	11	60	22	53.66%	4	
513445	18	13	19	9	59	23	56.10%	4	
513487	23	12	19	4	58	24	58.54%	5	
513719	17	12	16	11	56	25	60.98%	4	
508885	19	13	16	7	55	26	63.41%	5	
508482	24	14	16	0	54	27	65.85%	6	
513503	13	14	11	15	53	28	68.29%	5	
513439	21	8	13	10	52	29	70.73%	5	
513701	20	14	14	4	52	29	70.73%	3	
513808	21	11	9	11	52	29	70.73%	5	
509171	14	12	18	7	51	32	78.05%	3	
513615	19	13	9	10	51	32	78.05%	3	
513435	21	14	15	0	50	34	82.93%	3	
513494	24	10	8	8	50	34	82.93%	5	
513630	23	8	11	8	50	34	82.93%	4	
513802	20	15	12	0	47	37	90.24%	4	
513452	21	15	10	0	46	38	92.68%	3	
513438	19	8	10	4	41	39	95.12%	4	
513436	22	10	0	0	32	40	97.56%	5	
514042	4	5	4	7	20	41	100.00%	4	
508888	0	0	0	0	0	42	102.44%	#DIV/0!	
508900	0	0	0	0	0	42	102.44%	#DIV/0!	
508915	0	0	0	0	0	42	102.44%	#DIV/0!	
508961	0	0	0	0	0	42	102.44%	#DIV/0!	
508992	0	0	0	0	0	42	102.44%	#DIV/0!	
509058	0	0	0	0	0	42	102.44%	#DIV/0!	
509123	0	0	0	0	0	42	102.44%	#DIV/0!	
509146	0	0	0	0	0	42	102.44%	#DIV/0!	
509767	0	0	0	0	0	42	102.44%	#DIV/0!	
510838	0	0	0	0	0	42	102.44%	#DIV/0!	
513440	0	0	0	0	0	42	102.44%	#DIV/0!	
513540	0	0	0	0	0	42	102.44%	#DIV/0!	
513547	0	0	0	0	0	42	102.44%	#DIV/0!	
513602	0	0	0	0	0	42	102.44%	#DIV/0!	
513769	0	0	0	0	0	42	102.44%	#DIV/0!	
514005	0	0	0	0	0	42	102.44%	#DIV/0!	

박형준/2월/도약GS/2회/1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설문 3, 4의 경우 괄호 안에 명세서의 기재상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론에 이에 대한 사안의 해결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용이실시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 및 판례 써주시고, 물건발명에 대하여 특수한 판례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p> <p>다만, 여기서 실험자료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화학발명에 관한 판례를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물건발명에 대하여 실험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기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배경기술에 기재된 사항을 공지기술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종래 판례와 비교하여 제시해주신 답안에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바뀌기 전 종래 판례와 비교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3) 설문 3</p> <p>뒷받침요건에 대한 이해를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답을 틀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사안처럼 동일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뒷받침요건의 위반은 아니고 다만 42조 3항 1호가 문제될 수는 있다는 점을 기재해주신 분에게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p>	

(4) 설문 4

명확성요건에 대한 판례와 설문에서 물어보는 '바람직하게는'사건에 대한 판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이 설문 또한, 괄호 안에 적힌 사정을 바탕으로 사안의 해결을 적어주신 분에게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 제시되는 경우, 단순히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안됩니다. 사안의 해결을 통한 결론 부분은 꼭 작성해 주세요.

3. 소결

명세서 기재요건은 쉽게 생각하고 대충 공부하면 놓칠 수 있는 중요 법리들이 많이 포함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문제에 제시된 논점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세요!

<p>박형준/2월/도약GS/2회/2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청구항 기재불비에 관한 20점짜리 통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주세요.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관련법리를 한번에 나열하고 이후 청구항 별로 각각 어떤 기재불비가 있는지 적어주는 것이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청구항 1, 6, 7처럼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하자없음'을 언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다중 인용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게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청구항 4는 애초에 청구항 3만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3이 2이상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중인용이 될 수 없습니다.</p> <p>해당 설문에 나타난 기재불비 예시와, 변리사 기출 문제에 나왔던 기재불비 예시들은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게시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목차의 구성이나 가독성보다도 최대한 많은 기재불비를 찾은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p> <p>3. 소결</p> <p>기재불비는 자칫하면 다른 논점들에 비해 비교적 덜 중요하다 생각되어 놓칠 수 있는 논점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꼼꼼하게 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p>	

박형준/2월/도약GS/2회/3번	채점자
	강경민
<p>1. 문제 3</p> <p>우선권주장과 공지에외주장이 동시에 나와 다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설문에서 판단시점에 대해 먼저 해결하도록 물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이런 문제는 우선권 주장과 공지에외주장을 동시에 생각하기보다는 (1) 우선권 주장의 효력에 따라 청구항 별 판단시점을 먼저 확정 한 후 (2) 공지에외주장의 시기적 요건 만족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고 실수 방지 차원에서도 적절합니다.</p> <p>특허요건의 판단 시점을 묻는 설문 1, 2에서는 판단시점과 무관한 공지에외주장에 대한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해 답안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더러 있었으니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p> <p>우선권 주장의 객체적 요건 만족여부는 우선권 주장 자체의 적법성 보다는 판단시점 소급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객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서술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p> <p>우선권주장의 효력 인정 여부(주체적, 시기적, 절차적 요건 관련) 와 판단 시점 소급범위(객체적 요건 관련)의 목차를 따로 서술한 경우 답안 인상이 좋았으니 참고해주세요.</p> <p>설문 3, 4에서 청구항을 구분하지 않고 공지에외 인정여부를 판단한 답안도 있었습니다. 우선권 주장에 의한 판단시점 소급 여부에 따라 공지에외주장 시기적 요건 만족여부도 달라지니 항상 청구항 별로, 발명 별로 판단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p>	

박형준/2월/도약GS/2회/4번	채점자
	강경민
<p>2. 문제 4</p> <p>거절결정 전 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묻는 문제였습니다.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먼저 짚고 넘어간 후 타당/부당 나누어 답안 작성한 경우가 인상이 좋았습니다.</p> <p>이러한 다각적 조치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소모 없이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므로 평소 공부할 때 본인만의 기준, 틀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강약조절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진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진보성 판단 법리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자칫 논점 이탈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p>	

[문제-1]

I. 서문(1)

1. 용이성시요건 의미 ('실용성조항'호)

특히는 공개의 대가인바,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2. 핀례가 제시한 취지

특허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세서는 쉽게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한다는 취지이다.

3. 일반적 판단기준 (핀례)

특허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과중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 기재의해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
당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는지 판단한다.

4. 특허발명 판단기준 (핀례)

① 특허발명의 '기술'란 물건 '생산, 사용'을 의미하므로, ~~특~~ 발명의
실행 기재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과중한 실험이나 특수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특~~ 물건 자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② 이때 구체적인 실험등을 실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
가 효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으면 용이성시요건 충족한다.

5. 사안

① 효과 중형 실험자료 없다는 사정만으로 용이성시요건 위반이라고
보지 않다.



② 통상의 기술자가 권리 발생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요건 충족하나, 그렇지 않다면 요건 위반이다.

II. 실용(2)

1. 특허발명 기재 배경기술 기재

(1) 판례의 태도

1) 중전 판례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된 기술은 특허발명 신기술 성격 등 판단 시 공기술로 상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2) 전원합의체 판례

① 명세서 배경기술은 심사에 유용한 기존 기술이나, 최소한의 공기술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② 명세서에 배경기술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기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경도

배경기술 기재 시 피방지, 심사요율성 고려할 때 공기술로 보지 않는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이다.

2. 타특원 기재 배경기술 기재

(1) 판례의 태도

① 공기술로 볼 수 "없다"는 과거 특허법원 판례와, ② 공기술로 볼 수 "없다"는 최근 특허법원 판례 병존한다.

(2) 경도

배경기술이 최소한의 공기술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나,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인용하다.

3. 사안

- ① 배경기술 기재 사실만으로 공지기술 지위 가지지 않는다.
- ② 대안, "특정공개"된 경우 공지기술의 지위 갖는다.

III. 심문(3)

1. 뒷발침입권 ("조42조4항 1호)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발침입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판례)

- ① [용이성시험과 구별] "조42조4항 1호 충족 여부"는, 그 규정이 취지 달하는 "조42조3항 1호와 같이 쉽게 실시할 수 있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선 안되며, ② [형식적서평] 청구범위 기재된 사항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③ [너무 넓은 청구항 대책 역할] 이때 발명의 설명 개시내용을 청구범위 기재사항까지 확장·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관성의미 설명 부족한 경우(판례)

판례는 심문과 같은 사안에서, ① 청구범위 기재된 발명 일관성에 대응되는 부분이 발명의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 ② 뒷발침입권 충족한다고 보았다.

4. 사안

- ① 청구항 기재 발명 일관성의미 이해할 수 없더라도, ② 발명의



설명에 대응되는 사항 동일하게 기재되나, ③ 독점권 요건 "충족한다".

Ⅲ. 설명(4)

1. 명확성 요건 (헌법 조 4항 2호)

청구범위 규범적 역할을 고려해, 청구범위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판례 판시한 취지

① 특수인 입장에서는 권리요건이요건, ② 일반공중 입장에서는 보호범위 경계확정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3. 판단기준 (판례)

① [청구범위판독] "2017조"에 의해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의해 정해지는데,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② [발명의 설명판독] ~~이~~ ^이는 ~~기술적~~ ^{기술적} ~~판단대상~~ ^{판단대상} ~~안~~ ^안 ~~상~~ ^상의 기술치가 발명의 설명·도면, 기술상식 등으로 보아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개별적 판단해야 하며, 청구범위 기재 용어만으로 일률적 판단해선 안 된다.

4. 이중판정의 경우 (판례)

판례는 설명과 같은 사항에서, ① 상의개념을 의미하는지, 그중 하위개념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② 청구범위 드러내고 분할 소지가 있어 ③ 청구범위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바, 명확성 위반으로 보았다.

5. 사안

- ① '비광학하게는' 용어만으로 명확성 요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② 발명의 설명에도 동일한 내용만 적혀있어 그 해석을 두고 분쟁
 소지있고 다양한 인정해석이 가능한바, 명확성요건 "위반이다." (결)

[문제-2]

13

I. 청구항별 흥결 검토.

1. 청구항 1.

문제되는 기재복비 사유 없다.

2. 청구항 2

(1) '실질적으로' 원형 - "제42조 4항 2호

'실질적으로' 원형이라는 표현이 안정제 형태를 불명 조하게
 하므로 "명확성요건" 충족이다.

(2) 원형 - "제42조 4항 1호

발명의 설명에 "원형의 안정제" 기재되어있지 않아 뒤발명 요건
 충족이다.

3. 청구항 3

(1) "청구항 1 및 7에 있어서" - "제42조 8항, 제5조 1항

인용되는 청구항 7이 ^{인용하는} 청구항 3보다 뒤에 있어 대항제 기재방법
 충족이다.

(2) 복전이용 리드 - "제42조 4항 1호

발명의 설명에 '특정인용 고득권' 포함 안됨에 대한 기재 없으므로
득권필요성 충족이다.

4. 청구항 4 - '1조 4항 1호

'비그림방기' 포함 안됨에 대한 기재가 없어 득권필요성이
발명의 설명에 충족된다.

5. 청구항 5

(1) 다중인용 - '1조 4항 8항, 5조 6항

청구항 5는 2이상의 항 인용하는데, 인용되는 청구항 4가 다시 2이상의
청구항 인용하여 다중인용으로 ~~충족~~할 수 없다.

(2) 자기인용

①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되어야 하는바,
청구항 5 자기인용은 '1조 4항 8항, 5조 6항 위반이다.

② 또한, 자기인용의 경우 인용항을 명확히 판독할 수 없어 명확성요건도
충족된다 ('1조 4항 2호)

(3) 한국항 5(2) - '1조 4항 2호

상호상표를 표시하여 전자파차단 필름 불명확하게 하므로 명백성요건
충족이다.

(4) 말미 붙임 - '1조 4항 2호

인용되는 청구항은 "안정"인데, "안정제조방법"을 청구하여 발명 본
질요건이나 명백성요건 충족이다.

6. 청구항 6, 7

문제되는 기재 불비 사유 없다



7. 종속항 문제

종속항은 독립항 기재불비 판정할 수 있다.

(예)

→ 배경 고려해서 항 주장의 논리구조

[문제3]

정답!

I. 설명(1)

⑥

1. 관례제도 - 국내우선권주장제도

(1) 의의·취지 (1/25조)

내외국민평등 및 조약우선권주장권 균형 위해, 일정요건하에 선출권
시로 판단시정 소급시제는 제도이다.

(2) 요건·절차 (1/25조 1항, 2항)

① 특허를 받은 자는, 선출권일부터 1년 이내, 선출권 최초로 명세서·도면
범위 내 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② 출원시 취지와 선출권 표시요한다.

(3) 효력 (1/25조 3항)

신규성·진보성 판단, 선원, 확대된 선원, 공지예외주장출원시정 판단시
선출권내로 판단시정 소급한다.

2. 판단시정 소급범위

(1) 판례

① 판단시정 소급 인한 제3자 불이익방지 위해, ② 1/41조 2항 보정
같은 관점에서 ③ 선출권 최초로 명세서·도면 내의 발명만 판단
시정 소급한다는 입장이다.

정확하게!



(2) 부분우선권주장의 경우

부분우선권 주장해도 우선권 주장 자체는 적법하며, 다만 선출위원
에게 발명의 동일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 소급효 미치지 않는다.

3. 우선권 주장 적법 - 적법

국내 선출위원한 때이, 선출위원 2021.1.15부터 1년 내인 2021.9.15에
우선권 주장하며 출원한 바, 국제적 시기적 요건 만족하여 적법하다.

4. 특허청 판단서정

(1) 발명 A

① 발명 A는, 선출위원 S에 포함된 발명과 동일하다.

② 따라서, 선출위원인 2021.1.15 로 판단서정 소급한다.

(2) 발명 A+B

선출위원 S의 발명

① 발명 A+B는, A와 B를 합쳐 발명으로 A와 동일하지 않다.

② 소급효 미치지 않는 바, 출원 P 출원일 2021.9.15 기준으로 판단한다.

II. 설문(2) 6

1. 관련제도 - 최우선권 주장제도

(1) 의미·취지 (1'54조)

발명의 국제적 보호 위해, 소정요건하 판단서정은 선출위원으로 소급
하여주는 제도이다.

(2) 요건·절차 (1'54조 2 내지 5항)

① 우선권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 출원일 (1년 이내, 취지표시 및 선출위원
국가명, 출원일 적어 출원서제출해야 한다.



② 우선발명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해야 한다.

(3) 표어 (1항 54조 1항)

상위성, 진보성, 선출주의, 학대원 선출원주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인으로
소급한다.

2. 판단시점 소급범위 (판례)

① 제3자 불이익 방지 위해, ②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1항 55조) 일차원적 제정
③ 소급되는 발명은 선출원 최초로 명세서 기재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한한다.

3. 우선권 주장 적부 - 적법

⊕ 미국 선출원인 201, 선출원일 2020.11.15 부터 1년 내인 2021.
10.15에 국내 출원한바, 시기적 조제적 요건 만족하여 우선권 주장 적법하다.

4. 출원특허요건 판단시점

(1) 발명 A

① 선출원 Q의 발명 A와 동일하여 판단시점 소급된다.

② 선출원일인 2020.11.15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발명 A+B

① 선출원 Q의 발명 A의 개량 발명으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다.

② 판단시점 소급되지 않고, 2021.10.15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설문(3)

6

1. 문제되는 특허요건

① [상위성]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개량성 창작성 요건이다. (1항 20조 1항)



③ [신비서] 기술발전, 산업발전 촉진 위해 국제적창작성 필요하다.

③ [선유주의] 중복특허배제 위해, ^{선유원} 창권범위내에 발명은 선유원이유 갖는다.
(1항36조)

④ [특대원선유주의] 선유주의 보완 및 권리원보호 위해, 최초 명세서
공개 기재 발명에 대해 특대원 선유주의 인정한다. (1항29조 3항)

2. 발명법 특허인정점도.

(1) 발명A

~~1) 신규성 (1항29조1항)~~

판단시점 2020.11.15 보다 앞선 2020.8.15 甲 발명 A 공시되었는바,
신규성 결이다. (1항29조1항)

2) 선유주의, 특대원선유주의.

(2) 발명 A+B

1) 신규성·진보성.

판단시점 2021.10.15 이전 甲 발명 A 공시로 신규성 상실되지 않으나,
A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바, 진보성 결이다. (1항29조 3항)

2) 선유주의, 특대원선유주의.

甲특원 P의 발명 A+B에 의해, 선유주의 및 특대원선유주의 위반이다.
(1항36조, 1항29조3항) 다만, 甲특원 거절결정 행정시 선유주의는 극복가능
하다. (1항36조4항) *good*

3. 결론 - 등록불가.

발명A와 A+B 모두 거절이유 존재하여 등록가능성 없다.

Ⅳ. 설문(4)

6

1. 공시예외특장 적용거부

(1) 공시예외특장 의의특이성 (1230조)

조기공개특장 및 특허인보조위해,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공시예외
특장 수반하여졌음, 당해특허에 대해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발명별 판단.

good

① 발명A는, 우선특장특장 수반으로 공개일 2020.8.15부터 1년 이내인
2021.1.15 특유한 것으로 보거나, 공시예외특장 "적용된다".

② 발명A+B는, 판단시점 수반되지 않아 2021.9.15 특유한 이하 공개일
부터 1년 도과하여, 공시예외특장 "적용되지 않는다".

2. 발명별 특허요건 검토.

(1) 발명A

① [신규성] 공시예외특장 적용되어, 신규성 충족 없다.

② [선원주의 침해된 선원주의] 근의 선원주의에 의해 선원주의, 침해된
선원주의 위반이다. (2021.1.15 기준) 다만, 선원주의 거절권 정확성 정
선원주의 위반이다. (1230조4항)

(2) 발명A+B

공시예외특장 적용되지 않음.

① [신규성] 자기공지로 인해 신규성 부정되지 않으나, A+B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바 진보성 충족이다. (1230조2항)

② [선원주의 침해된 선원주의] 2021.9.15 기준 선원주의 조대하지 않아 무게
되지 않는다.

3. 특허 등록가능성-등록불가

good!
완벽하게
신원주의

발명 A, A+B 모두 거절이유 존재하는바, 출원 P 등록받을 수 없다. (글)

[문제-4]

I. 설문(1)

1. 거절이유 통지 타당성 검토.

(1) 문제되는 특허요건 - "항29조 2항."

기술발전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공제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요한다.

(2) 사안.

발명 A+B와, 선행발명 A는 구성 B의 복가에 있으나, 구성 B 복가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지 실문상 불분명하다. 용이하다면 통지가 타당하고, 용이하지 않다면 부당하나, 이하 경우를 나누어 서술한다.

2. 거절이유 통지 타당한 경우

(1) 변경특원 (실용신안법 10조) good

① 물건발명 A+B에 대해, 실용신안으로 변경특원 고려할 수 있다.

② 한편 발명 A+B+C에 대해서는 삭제보정 및 분할특원이 적절하다.
제한구분방식 및 권리대각화위해

(2) 청구항 삭제

청구항 1 삭제보정 통해 ("항47조"), 청구항 2의 등록도요한다.

(3) 조리변형.

권리확보 측면에서 삭제보정보다, 변경특원의 실익이 훨씬 더 크다.

3. 거절이유 통지 부담한 경우

(1) የግንባታ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수정~~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2) 작가 소개

이때, 신속한 결정을 위해 장항근은 보석제 및 분할대출(1월52주)
항이 바람직하다.

II. 설문(2)

1. 거실결성 ~~양~~ 정도.

국정원의 부가 가능한 경우 거절결정 단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

2. 거절절령 치당한 경우

(1) 행정중심원

① 물건발매 A+B를 실행한이후 변경되는사항이 있다면, 실행시간(10초)

② 이때 $A+B+C$ 는 식제변형(식41)과 빛 분할(식42)량이 가장 적다.

(2) 재생사정곡 (빛 ~~5~~초 6초의 2)

① ~~북한발~~ 중요인이익을 위해, 보정수반하여 재심사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따은 평우항 | 삭제보정 의 재심사청구하여 평우항2 원리 되 있 다.

(3) 조지병신약

기타사항 : ○본지에서 변경될일이 재심사정구보다 이량이 있다.

3. 거절결정 부당한 경우

(1) 저질경정불복심판 항소(12132소의17)

甲은 국경 B 부가 용이하지 않아 전방성 복정되지 않음을 다룰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하여.

(2) 삭제보정 및 분자출원 - 사결전처.

청구항 2의 신속한 권리화 위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청구항 2의
 삭제보정 (원447호) 및 분자출원 (원52호) 수반함이 바람직하다.

(3) 분자출원 및 심판촉진신청 시유전처.

^{분자출원}
 거절결정기각심판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항 2 분자출원 (원52호
 의2) 하여 별도 권리화하고, 청구항 1에 대해서는 심판촉진신청 (원186호)
 제기하여 ~~거절결정~~ 다룰 수 있다. ㄱ (끝)

- 이하야생 -

청구항 2의 신속
 권리를
 위한
 분자출원
 무리하지 마세요

[문제 -1]

I. 선행문 (1)

1. 용이 실시 요건 의의·취지 (법 제42조 3항 1호)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 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발명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판례가 판시한 취지.

특허제도의 의의 발명의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에 있는 바, 제3자가 실시하기 용이하게 명시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판단기준 (판례).

통상의 기술자가 숙원 당시 기술수준에 따라 다른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가능해야 한다.

4. 물건발명의 경우 판단기준 (판례)

(1) 형식적 재현 문제

물건발명의 경우 실시는 물건의 생산·사용 등을 의미하는 바 (법 제2조), 통상의 기술자가 숙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다른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물건을 생산·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2) 효과 예측 관련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효과의 확인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5. 사안.

- i) 발명의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자료가 없더라도
- ii)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고, 효과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용이한지 모진 대비가 아니다.

II. 식별 (2)

1. 배경기술 기재의무 의미·취지 (법 제42조 3항 2호).

심사 편의를 위해,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지기술 지위 여부... 소극.

(1) 문제점.

배경기술에 기재된 경우 공지기술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문제된다.

(2) 종래 判例.

배경기술 쪽은 특허청 권제부에 기재된 경우 공지기술로 볼 판사가 있다.

(3) 전원합의체 判例.

1) 전제

- i) 출원 시 공지된 기술의 경우 신규성·진보성이 문제되나, ii) 이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iii) 이를 부정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가진다.



Good

2) 결론.

출원시 배경기술을 적는 것은 종래기술로
심사 편의를 위함이지만, 명문으로 공리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실인정의 문제이
므로 출원인의 자백 등과 같은 인정 없이 공리
기술로 볼 수 없다.

(4) 검토.

실체적 진실 보장을 위해, 적절함으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3. 결론.

출원인의 자백의 경우 인정되나, 배경기술 자체만
으로 곧바로 공리기술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III 실문(3).

1. 뒷받침 모든 의미 취지 (법 제42조 4항 2)

특히는 공개의 대가인바, 발명의 실용성으로부터 충구
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판례가 판시한 취지.

특히제로는 기술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바, 공개에 기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독점권 부여를 방
지하기 위함이다.

3. 판단기준 (판례)

(1) 용이성시 요건과 구별.

법 제42조 4항 1호 여부는 용이성시 요건과 구별되는 바 쉽게 실시 가능한 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형식적 서포트 문제

청구항에 기재있는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에 판단해야 하며.

(3) 너무 넓은 청구항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항 기재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으나 따져보아야 한다.

4. 종결 예

공헌도가 낮거나, 필수적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종결에 해당한다.

5. 일구성의 의미 판례

i) 청구항에 기재된 일구성의 의미 및 구현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ii) 용이성시 요건 하에 판단해서는 안되며 iii)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구성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 뒷받침 요건을 만족한다 판시한 바 있다.

6. 사안

i) 일 구성의 의미 실행예의 경우 과제해결원리나 무관한 내용인 바 형식적 서포드만 판단하였다.

ii) 실문의 경우 과제해결원리나 무관하다면 형식적 서포드를 만족한 바 뒷받침 요건 위반이 아니다.

IV. 실문 (4)

1. 명확성 요건 의미·취지 (법 제42조 4항 2호)

청구범위의 권리로서, 권리공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명확한 표현으로 적어야 한다.

2. 실행예가 표시한 취지

청구범위는 i) 제3자 실시예 있어 권리를 공시하는 역할 및 ii) 권리 시 권리요구 범위를 확장하는 기제인 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판단기준 (실행예)

(1) 전제

법 제97조에 따라 권리의 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바,

(2) 원칙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3) 예외

구성이 불명료한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에 적힌 내용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필요하여야 하며,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으로 알릴
것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4. 비관직하게는 확실히.

청구범위의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비관직하게는'으로
연결된 모든 사안에서 i) 용어 자체만으로 명확성 요건
위반은 아니지만 ii)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지칭하는
것이 불명확하여 iii) 관련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요건 위반이라고 인식할 바 있다.

5. 사안.

- i) 용어 자체만으로 명확성 요건 위반은 아니다.
- ii) 반명의 설명을 참작해도 청구범위와 동일하다.
- iii)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지칭이 불명확하여 관련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
- iv) 한편, '도'로 보정할 경우 기재분배 극복이 가능
하다.

끝.

[문제 -2]

17

I. 관련 특허요건.

1. 뒷받침 요건 (법 제42조 4항 1호).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 바, 발명의 실용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명확성 요건 (법 제42조 4항 2호)

처방전의 기능 고려 시, 명확한 용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3. 다항제 기재방법 (법 제42조 8항).

다항제 → 심사편의를 위해, 다항제 기재방법은 준수하여야 한다.

II. 사안.

1. 청구항 1의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2. 청구항 2의 경우.

(1) 명확성 요건 위반.

'실질적으로'의 명확성 요건 위반이다.

(2) 뒷받침 요건 위반.

'원형'의 뒷받침 요건 위반이다.

3. 청구항 3의 경우.

(1) 전제 인용의 경우.

다항제 기재방법 위반으로 청구항 3 인용이 무효된다.

(2) 뒷받침 조건 위반

‘목적이용 고부족’의 뒷받침 조건 위반이다.

4. 청구항 4의 경우.

(1) 다중 인용 문제

청구항 3은 2개 이상의 항을 인용하므로 다중 인용이 문제된다.

(2) 뒷받침 조건 위반

‘미끄럼 방지’의 뒷받침 조건 위반이다.

(3) 청구항 3 - 택일적 인용 문제

(1) 청구항은 택일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5. 청구항 5의 경우.

(1) 자기 인용 문제

자기 자신을 인용하는 것은 기각될바에 해당한다.

(2) 명확성 조건 위반

한국공작(주)의 경우 상호로서 명확성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뒷페이지
보유세로

6. 청구항 6의 경우.

(1) 카레고리 문제

제법, 반명이나, 독립항인 바 문제되지 않는다.

7. 청구항 7의 경우.

(1) 카레고리 문제

제법을 인용하여 물건반명은 특정화한 바, PBP로

문제되지 않는다.

8. 동일성 요건 위반 여부 ... 소극.

복수의 독립항이 존재하나 선행기술이 나와있지 않은
바 문제되지 않는다.

9. 종속항 문제

종속항은 독립항의 기재범위를 그대로 포함할 여지
가 있다.

5. (3) 청구항 5 - 카리고리 문제.

물건 발명을 인용하면서 제법으로 다루어진 바 카리
고리 문제가 존재한다.

I. 4. 판단기준 (判例)

(1) 명확성 요건

1) 원칙.

구상을 분명하게 하는 용어는 원칙적 불허이나

2) 예외

발명의 설명 환각하여 개별적 파악해야 하며

청구범위 용어기준 인용적 판단은 위법하다.

(2) 뒷받침 요건

i) 용어 실시 요건과 구별하여야 하며, ii) 청구범위

기재 사항과 대응 사항이 발명의 설명 기재해야

하여, iii) 발명이 선행 개시 범위까지 청구범위
내용이 확장 또는 일반화 가능해야 한다.

끝.

가장 중요

특정 개시 잘 하십시오!

[문제 - 3]

I 선택 (1)

①

1. 국내 우선권 주장 의미. 처리 (법 제 55조).

조약 우선권 주장과 이 현형을 위해, 국내 선출된 시로 판단
시점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이다.

2. 조건 및 절차.

(1) 주체적 조건

선출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처지는 가진 자다.

(2) 객체적 조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이다.

(3) 시가적 조건

선출원일부러 1년 이내 출원하여야 한다.

(4) 절차

출원 시 처리 표시 및 선출원 표시하여야 한다.

3. 객체적 조건 판례.

i) 제3자 피해 방지를 위해 법 제 47조 2항에

따른 보정과 마찬가지로 / ii) 최초로 명세서 또는 도

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명세서로 기재되었거나

특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 상식에 의해 명

세서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 *Good*

4. 효과.

(1) 소송료

상구성 · 진보성 · 선출원주의 · 선사용권 등 판단 시
판단시권이 소용한다.

(2) 부분 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 출원 발명 중 일부만 해결하는 경우
그 일부만 소용한다.

5. 판단시권 검토(1) 발명 A의 경우

i) 무의 출원일 ii) 선출원 회지 명세서 555면
에 명시적 기재 사항이며 iii) 1년 이내인 바
2021. 1. 15가 판단시권이 된다.

(2) 발명 A+B의 경우

i) 무의 출원일이나 ii) 선출원 회지 명세서 555면
범위라고 볼 수 없든 바 iii) 2021. 9. 15가 판단
시권이 된다.

II. 선출원(2)1. 조약우선권 주장 의미 · 취지 (법 제54조)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외국 출원인으로 판단시권을
소용시켜주는 제도이다.

2. 요건 및 절차(1) 국제적 요건

우선권을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객체적 요건.

i) 최선성,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며 ii) 선출원 최초로 명세서 또는 도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시기적 요건

최초 출원인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4) 절차

출원 시 취지 기재 및 최초 출원 국가명 및 법정
일을 적어야 한다.

3. 객체적 요건 실패.

i) 제3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우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ii)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반드시 명세서로
기재되었거나 출원 시 기술 성격에 의해 통상의 기술
자가 명세서로 기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good*

4. 효과.

(1) 소유권

상속성, 전보성, 선출원국의 확대된 선출원국의
판관 사건이 소용한다.

(2) 부분우선권 주장.

지배한 일부 발명에 대해서만 판관 사건이 소
용한다.

5. 판단 시점 검토.

(1) 발명 A의 경우.

i) Z에 속한 이고 ii) 명시적 기재 사항이며 iii) 1년
이내 속한 바 2020.11.15가 판단 시점이 된다.

(2) 발명 A+B의 경우.

i) Z에 속한 이거나 ii) 개시된 후 9개월 iii) 2021.
10.15가 판단 시점이 된다.

III. 선행(3).

4

1. 관련 특허 5건.

(1) 신규성 (법 제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공시기술과 다른 것을 요하
다.

(2) 진보성 (법 제 29조 2항)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시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요한다.

(3) 선행기술의 (법 제 36조)

기술의 조기공개유도를 위해,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
를 받는다.

(4) 특허된 선행기술의 (법 제 29조 3항)

선행기술의 보전을 위해, 출원공개된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과 동일한 발명은 등록 불가능하다.

2. 등록가능성 검토.

(1) 발명 A의 경우 ... 소극.

i) 2020. 11. 15 보다 전지인 2020. 8. 15 무의
공연실시로 A는 공지된 바 ii) 신규성 충격으로 등록
불가하다.

(2) 발명 A+B의 경우 ... 소극.

i) 발명 A로부터 쉽게 발명 가능해 바 진보성 위반,
ii) 충원 P가 공개될 경우 확대된 선택의 자유 위반
및 iii) 충원 P에 의한 선택의 자유 충격으로 등록 불가
하다.

IV. 실문(4) ④

1. 공지예외주장 적법성

(1) 의의·취지 (법 제30조).

충원인 보호를 위해, 자가공지발명에 대해 비공지
간주 제30조이다.

(2) 요건

권리자에게 의해 공지된 발명이 1년 이내 충원되어야
한다.

(3) 공지의 성격

i) 의사에 의한 공지와 불한 공지가 있고, ii)
사실에 경우 의사에 의한 공지다.

(4) 절차

출원 시 취지 표시 및 30일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등록권 보완 가능하다.

(5) 효과.

공시된 반명을 비공적으로 간주한다.

(6) 사안.

i) 국내 우선권주장의 적법성으로 반명 A에 대해
적법하나, ii) A+B는 부적법하다.

2. 등록가능성 검토.

이 (명) 넣었다는 것
아니 아니!
과제히!

(1) 반명 A의 경우... 소극

신규성·진보성은 문제되지 않으나 2이출원으로
선원 및 확대된 선원 위반에 해당한다.

(2) 반명 A+B의 경우... 소극.

i) 공시된 A로부터 진보성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출원 P는 등록이 불가하다.

끝.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4].

I. 설문(1)

(10)

1. 진보성 차이·취지 (법 제29조 2항).

기술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승리기술프로젝트-합체
발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거절이유통지 타당성 검토.

특은 심사관·전담관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통지에
대응하여야 한다.

3. 거절이유통지가 부당한 경우(1) 의견서 제출

특은 심사관이 진보성 판단을 잘못하였다 주장
하여 거절이유를 다룰 수 있다.

(2) 분할출원

특은 청구항 2이 인원하고 빠른 등록을 위해 분할
을 고려할 수 있다.

4. 거절이유통지가 타당한 경우.(1) 보정서 제출. (법 제47조)

특은 청구항 1을 삭제하는 보정을 통해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2) 승지예외 주장. (법 제30조 3항)

특은 선행발명 A가 자기승리발명인 경우 승지예외
주장 보정을 고려할 수 있다.

(3) 분할특원

특원인체의 원칙 (判例)으로 모든 청구항 2의 분할 후 청구항 1을 가릴 수 있다.

(4) 변경특원 (실용신안법 제 10조) Good

모든 실용신안 등록특원으로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5. 의견서 제출의 요지.(1) 진보성 판단 방법 (判例)

특원반영의 구성과 선행기술 범위 및 내용 특징 후 주선행반영을 선택하여 차이점을 확인 후 극복이 쉬우리 판단하며 사후적 고안을 근리한다.

(2) 주장 1 - 선행기술 각각 부정.

선행반영 A의 각각을 부정한다.

(3) 주장 2 - 용이성 부정.

A에 B를 추가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주장 3 - 사후적 고안 근리.

심사관의 판단은 사후적 고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II. 실문(2)

6

1. 거절결정의 확정성 검토.

④ 신체. 직무수행에 적격성인 위법성을 인정한다.

2. 적격성인 위법한 경우.

(1) 적격성인 위법한 경우 (법 제132조의 7)

④ 적격성인 위법한 것은 다음 (i) 진정성 관련에 신체적 위법이나 (ii) 의사결정능력에 미주어 등 관련 위법을 가할 수 있다.

(2) 불합격원 (법 제52조의 2)

④ 적격성인 위법한 것이 적격성인 위법한 경우 불합격원을 시도할 수 있다.

(3) 신체적소송 (법 제186조)

④ 신체적 위법성을 가하기 위해 적격성인 위법한 것이 적격성인 위법한 것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적격성인 위법한 경우.

(1) 재심사청구 (법 제67조의 2)

④ 재심사청구 후 소송을 통해 승격을 도모할 수 있다.

(2) 불합격원

④ 불합격을 통해 승격을 도모할 수 있다.

(3) 변경청원

④ 실용신안등록청원 변경을 통해 승격을 도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많은 것들이
승격을 도모할 수 있다!
승격을 도모할 수 있다!
승격을 도모할 수 있다!